

경쟁시대의 사내 정보화 비전

김 문 규

(한국통신 전산기획국장)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과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자기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WTO 개방화에 따라 '98년부터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해 통신산업구조를 경쟁력 강화에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통신(KT)에서 지난 7월 "KT비전 2005"를 경영혁신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2005년 30조원의 매출 목표달성을 전사적으로 선포한바 있다.

앞으로 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간 경쟁우위 확보를 한 통합정보시스템(ICIS) 개발로 지금까지의 관리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즉, 고객지향 시스템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만 할 때이다.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내정보화에 기반이 되는 종합전산망의 구축,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통합정보센터의 구축 등 사내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보화 예산 투자 확대로 정보 인프라 구축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사적인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목표로 사내 정보화 기반확대를 위한 경영자의 정보의 생활화 및 경영의 도구화로 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실무교육 강화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자체적인 양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육센터의 설립, 운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그리하여 KT가 범세계적인 종합통신사업자로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인 통합DB 구축으로 정보공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21세기 고객지향 One Call체제로 전환하고, 제2도약을 위한 전략적 준비로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며 사내 정보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국내 최대의 SI과제인 ICIS개발을 KT 주도하에 3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국내 정보자원의 총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개발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NTT사에서는 6천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객정보 시스템(CUSTOM)을 개발하는 5년간의 개발기간과 약 2조 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초 개발을 완료하여 전국확산중

에 있다고 보도된바 있다.

“개방과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시스템통합(SI) 사업자로서 필요로하는 정보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개인별 CDP관리 및 미래지향적이며 능동적인 자기개발 전략으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공동목표로한 정보화 비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3년후 국내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과 시스템통합(SI)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며, 국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필드 테스트 및 품질보증을 거쳐 동남아 개발도상국 통신시장에 진출하여 순수 국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수출하여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 전산화 이후의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것을 확신한다.